

2022 대림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우리는 대림의 문 앞에서 다시 만납니다. 대림은 강한 기도와 애덕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기쁜 희망의 시기이고 또한 즐거운 마음과 깨어있음,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살도록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 주님께서서는 전에 오셨고 지금도 오시며 장차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도록 초대하시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촉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분의 오심은 인간의 역사를 변모시켰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신 그분의 현존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마음을 바꾸는 것, 사랑하고자 하는 것, 하느님의 선하심에 인도되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우리 공동체 안팎의 약하고 곤궁한 이들, 노인들과 환자들, 우리의 경청과 시간과 열정과 이해와 자비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의 형제애와 연대를 사는 세상을 건설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림 시기의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요즘 복음서 저자들은 우리에게 이 선구자에 대해 말해 줍니다. 그는 우리를 적극적이고 요구가 많은 대림 시기로 초대합니다. 성탄에 임박하여 하느님의 오심을 기리는 것은 그저 감상과 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림과 성탄의 은총은 전적인 수용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는 삶에 대한 개방을 요구합니다. 길을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고, 곧게 만들고, 다른 이들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참회하여 생각을 바꾸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기에 무수히 반복되는 단어들이 “깨어있음”과 “회개”에 대해 묵상하기를 권고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나 주님의 현존에 깨어 있음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사자로 오십니다. 또한 깨어있는 것은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 마음이 봉사를 향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먼저 응답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나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삶의 어떤 점에 대해서 주님은 나에게 변화를 요청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태도가 아직 나에게 부족하고, 더 발전시켜야 합니까? 나는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기도하고, 더 잘 봉사하고, 더 많이 투신하려는 나의 노력에서 일관됩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 안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매일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우리를 이기심, 죄, 미지근함, 부패에서 해방시키러 오시는 주님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 나라와 그 구원이 가까움을 느끼는 때입니다. 하느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채울 수 있습니다.

대림의 다른 인물인 이사야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온갖 종류의 고통과 가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언자의 이 말은 현실이고, 희망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줍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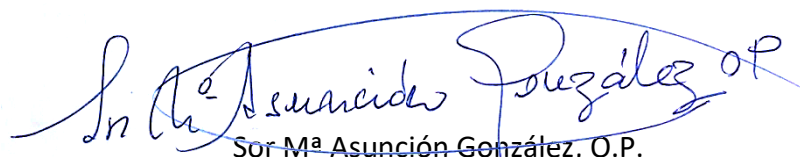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지금도 많은 곳에서 불의와 전쟁, 자연재해, 굶주림, 비참함을 겪는 어려운 상황들을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상황들이지만, 모두가 우리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알아보고 형제들로서 행동하기를 배운다면, 아니, 적어도 인간으로서 행동하기를 배운다면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자렛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러 세상에 오십니다.

또한 이 시기는 성모님을 부각시킵니다. 성모님께서 전적으로 그리고 즉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따르신 믿음과 겸손의 덕을 기립니다. 마리아는 오시는 주님께 대한 기쁜 기다림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미 오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고자 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역사의 첫 대림에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그 내적 태도와 사랑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도록 합시다.

기쁘고 거룩한 대림을 지내고, 겸손과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포옹을 보냅니다.


Sor Ma Asunción González, O.P.
Priora General